


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	보 도 자 료				
	한국회계기준원 	보도	2020.5.21.(목) 조간	배포	2020.5.20.(수)

기 관	책 임 자	담 당 자
금융위원회	기업회계팀장 김선문 (02-2100-2690)	차영호 사무관(02-2100-2692)
금융감독원	회계관리국장 최 상 (02-3145-7750)	이재훈 팀장(02-3145-7970)
회계기준원	조사연구실장 최현덕 (02-6050-0166)	이윤희 수석(02-6050-0178)

제 목 : 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제도를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대폭 개선하겠습니다.

- ① 그 간 회신하지 않았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는 원칙적으로 회신하고, 그 과정에서 회계처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.
- ② 회계처리기준 내용을 묻는 질의는 질의회신 공개 사례를 확대하고, 사례 공개시 쟁점사항 정리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.

1 질의회신제도 현황

- 회계당국은 ‘10년부터 기업·회계법인 등의 국제회계기준(IFRS,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) 적용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회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* 회계기준원은 회계처리기준 제·개정,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업무 등을 금융위로부터 위탁받음(외부감사법 시행령 제7조제1항)

- 동 제도는 금감원·회계기준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「질의 회신연석회의*」 논의를 거쳐 회신하는 구조입니다.

* 공동위원장(금감원 국장·기준원 상임위원), 금감원 및 기준원 팀장 2인, 민간전문가 9명 (금감원·기준원·한공회·상장협 각각 2명, 코스닥협 1명 추천)을 포함한 총 13명

- 질의 유형은 크게 ①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와 ②특정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로 구분됩니다.

①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는 그 내용의 난이도 및 쟁점사항 여부 등을 기준으로 ③기술적 지원과 ④해설로 나뉘며

- 기술적 지원사항은 신속처리(실무자 검토, 2~3일 내)하고 해설사항은 질의회신연석회의(1~2개월 소요)를 거쳐 회신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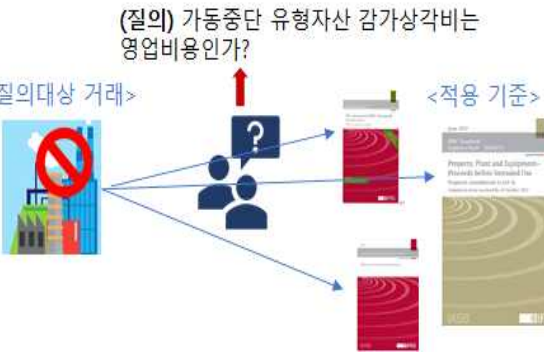

* ① 기술적 지원사항 : 573건('16년), 1,057건('17년), 1,424건('18년), 1,769건('19년)
 ② 해설사항 : 18건('16년), 24건('17년), 31건('18년), 22건('19년)

- ②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는 해당 거래 관련 사실과 상황을 잘 아는 질의자의 판단사항으로 보아 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.

① (회계처리)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	기준서가 회계처리 방법 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이해 부족 으로 문의하는 단순 질의	기술적 지원
	기준서가 회계처리 방법 을 제시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쟁점사항 이 있어 문의하는 복잡한 질의	해설로 회신
②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	질의대상 거래 관련 특정 사실과 상황 에 기초한 질의자의 회계처리 판단 이 적절한지 를 문의하는 질의	

<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유형별 예시 >

구분	①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		②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
	㉠기술적 지원으로 회신	㉡해설로 회신	
질의 예시	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조치로 공장가동이 강제 중단된 상황에서, <u>일시 가동중단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속 회계처리</u> 해야 하는가?	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조치로 공장가동이 강제 중단된 상황에서, <u>일시 가동중단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인지 아니면 영업외 비용인지?</u>	선사는 화주와 장기해상 운송계약(선박대체권 포함) 을 체결하고 선박을 제공함. 선사는 현재까지 동 선박을 2회 대체 하였으며, 대체 결과 1번은 이익 1번은 손실 이 발생(대체시점에는 이익을 예상) 이 경우 선사는 계약기간 동안 선박 대체로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 해도 되는가?
회신 예시	<u>운휴(가동중단) 여부와 관계없이</u> 내용연수가 한정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계속 비용으로 회계처리	동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 중 <u>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</u> 으로 일반적으로 <u>매출원가(영업비용)</u> 로 분류 기준서는 <u>영업과 명백히 관련된 비용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거나 금액이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로 영업활동의 성과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고</u> 설명	☞ 특정 사실과 상황 에 기초한 회계처리 판단 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 사항으로 회신하고 있지 않음

<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 >	<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문의하는 질의 >
<p>(질의) 가동중단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인가?</p> <p><질의대상 거래></p>  <p><적용 기준></p>	<p><관련 사실과 상황> <질의대상 거래> <적용 기준></p>  <p>선박대체 시장업황</p> <p>대체가능 선박존재</p> <p>2회 선박대체 (1회 이익)</p> <p>장기해상 운송계약</p> <p>(질의) 선박대체권 행사로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가?</p>

2 제기되는 이슈 및 문제점

가.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(해설로 회신하는 질의 위주)

- 질의회신 사례를 일부 공개하기 시작하였으나, 공개 사례수가 적고, 그 내용도 충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
 - 회계당국은 ‘회계감독선진화 방안(‘19.6월)’ 후속조치로 ‘19년 상반기 회신건(9건)’에 대해서만 ‘19년 12월말’ 공개하였습니다.
 - 현재 결론 도출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쟁점사항 등에 대한 추가 정보 없이 결론과 판단근거만을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.
- 기업회계 현장에서는 질의회신 사례에 대한 온·오프라인상의 교육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
 - 그간 일부 질의회신 사례에 대해 결론 및 판단근거만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수행해 왔습니다.

나.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

- 현재 회계당국은 거래를 둘러싼 특정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한 회계처리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 판단의 어려움을 들어 그간 회신하지 않았습니다.

- 이로 인해,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(IFRS) 도입으로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.
- 특히, 회계처리가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회계당국에 사전 질의하면 답변 없이 사후에 제재만 한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.

3 개선방안

가.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(해설로 회신하는 질의 위주)

- ① (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 강화를 위해) 질의회신 공개 사례수 대폭 확대 및 논의과정상 쟁점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
 - 원칙적으로 질의회신 사례를 공개하되, 매년 상반기 질의회신 사례는 연말에, 하반기 사례는 차기연도 6월말에 공개합니다.
 - (정보이용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) 질의회신 공개시 논의과정에서 검토된 쟁점사항을 참고자료로 추가 제공합니다.
 - 과거 약 10년간 축적된 사례*도 '16~'18년도 해당분(39건)은 '20.6월말, '11~'15년도 해당분(61건)은 '20.12월말까지 공개할 계획입니다.

* 국제회계기준(IFRS)의 후속적인 제·개정으로 질의회신 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공개 실익이 없는 질의회신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

- ② (기업 및 감사인 등의 회계처리기준 업무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해) 질의회신 사례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매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.

* 오프라인 교육(기준원 자체 교육 2회, 상장협·코스닥협 교육 2회, '20년 하반기), 온라인 교육(질의회신 사례 공개 이후 유튜브에 관련 강의를 업로드, '20년 하반기)

나.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

□ 회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중요한 쟁점이 있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신하겠습니다.

-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 및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관련 고려해야 할 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안내해 나가겠습니다.

* 질의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판단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필요

□ 다만, 회계처리 방법을 정해주는 판단은 하지 않으며, 회계처리 완료 이후 조사·감리가 진행중인 사례에 대한 질의는 회신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.

※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회신 관련 개선사례(예시) 세부내용은 p7 참조

4 기대효과

①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 관련, 질의회신 사례 공개 범위 확대, 논의과정상 쟁점사항 자료 제공 및 사례 교육을 강화합니다.

- 기업(감사인 포함)의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능력 및 정보이용자들의 회계처리기준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②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 묻는 질의 관련, 원칙적 회신을 통해 회계처리 관련 고려할 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.

- 회신하지 않는 질의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기업들의 국제회계기준(IFRS)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➡ 기업들이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(IFRS)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5 향후계획

- ① 질의회신 사례 공개 범위 확대 및 관련 참고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(‘20년 6월 이후, 잠정)
- ② 질의회신 사례 관련 온·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(‘20년 하반기, 잠정)
- ③ 특정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한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문의하는 질의에 대한 회신을 즉시 확대하겠습니다.

< 관련 용어 설명 >

- 국제회계기준(IFRS) : 국제회계기준위원회(IASB,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)가 공표한 회계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144개(‘20.4월말 기준) 국가가 도입 및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

[참고]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회신 관련 개선 사례(예시)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나부터 자기는 우리 모두의 건강
--	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사례 1번 : 연결범위 판단 관련

1. 질의내용

- ▶ 투자자 A사는 피투자자 B사에 대해 의결권 지분 40%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배력의 3가지 요소(①힘, ②피투자자의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이나 권리, ③힘과 이익의 연관) 중 힘을 충족하면 연결한다고 가정
- ▶ B사의 최근 주주총회에서 A사의 실질지분율*은 52%였음. 주주총회 참석시 실질지분율이 과반을 초과하므로 A사는 B사를 연결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는가?
(☞ 현재 해당 질의에 대해 회신하고 있지 않음)

* A사 지분/주주총회 참석 총지분

2. 질의회신 개선(예시)

- ▶ 과거 주주총회 의결양상은 과반수 미만 의결권 보유시 힘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지표 중 하나에 해당
- ▶ 따라서, 회사는 ①주주총회 의결양상 이외에도 ②지분의 분산 정도, ③주주들의 구성, ④최근까지의 참석률 변동 추이, ⑤다른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률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요소(예: 전자투표제) 등 모든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함

사례 2번 : 리스계약 판단 관련

1. 질의내용

- ▶ 선사는 화주와 장기해상운송계약*(선박대체권 포함)을 체결하고 선박을 제공함. 선사는 현재까지 동 선박을 2회 대체하였으며, 대체 결과 1번은 이익, 1번은 손실이 발생(대체시점에는 이익을 예상)

* 동 계약이 리스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선사의 대체권이 실질적인지 검토가 필요 → 기준서상 ①선사가 대체자산으로 대체할 실질적인 능력을 사용기간 내내 가지고, ②대체권 행사로 경제적 효익을 얻는다면 대체권이 실질적이라고 규정

- ▶ 이 경우 선사는 계약기간 동안 선박 대체로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도 되는가? (☞ 현재 해당 질의에 대해 회신하고 있지 않음)

2. 질의회신 개선(예시)

- ▶ 선박대체로 인해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①선사와 화주간의 계약 조건, ②계약기간 동안의 선박 대체 시장의 업황, ③선박대체 기회, ④운항 일정 등 다양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가 판단해야 함